
2019년 제14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2019. 1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최근 청탁성 전화 및 문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공표하고 심의에 반영함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19년 제1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 일 시: 2019. 11. 21.(목) 14:00~18:00
- ◆ 장 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 ◆ 참 석: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총 15건 32작품 (조각 24작품, 부조 1작품 미디어 1작품, 회화 6작품)
- ◆ 결 과: 승인 12작품, 부결 20작품

<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권고사항 >

■ 심의도서 작업 관련

- 심의도서 내 주변 건축물이나 사람과의 조화를 담은 페이지를 구성하실 때, 심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작품이 실제 설치될 크기보다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건축물, 사람과 비교하여 실제 설치될 작품 크기보다 필요이상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도서를 만들게 되면, 작품 심의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추후 심의에 상정되는 심의도서에 과장된 그래픽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알립니다.

■ 작품 설명판 관련

-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공미술작품의 특성상 작품 설명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작품 설명판의 내용과 디자인 또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설명이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문법적으로 어색하여 작품 감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품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알립니다.

위원장: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별 개별채점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별 자료검토 및 토론 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사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방식을 제시하실 위원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 1번 안건: 점입가경

- 작품의 높이도 적당하고, 사람의 통행도 무난하고, 실제로 설치되면 시원스럽게 보일 것 같음. 다만, 심의도서의 그래픽 작업이 과장된 부분이 있음. 곁에 서있는 평균적인 신장을 지닌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작품의 크기가 최소 6~7m로 보임
-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요소인 알파벳의 조형물로 표현되었으나, 전체적인 구조나 형태가 무난함
- 작품 조형성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지만, 통행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음
- 아치형태가 작품을 평이하게 만드는데다가 설치되는 방식 또한 작품을 더욱 평범하게 만듦
- 아치형태가 너무나 정직하고 예상 가능하여 특별함을 주기에는 조금 아쉬움
- 의도적으로 선정된 위치가 오히려 공간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짐
- 스트리트 퍼니처 느낌이 있으나 무난함
- 공간에 변화를 주어 흥미로우나, 다소 무겁게 느껴짐
- 의미와 조형성이 신선한 부분도 있음

□ 2번 안건: 마음의 동지

- 독창성 있는 미술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 예술성을 좀 더 반영하여 섬세한 표현이 나왔으면 좋겠음
- 중성적 감성의 추상요소에 대해 매력을 느끼기 어려움
- 매우 익숙한 패턴이고, 작품의 주제성도 모호하고 평이함
- 장소적 맥락과 내용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음
- 익숙한 형태지만 렌더링대로 구현된다면 색감과 볼륨감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조형성
- 내용과 형식이 평범하고, 추상적임
- 조형언어가 평범하며 어색함

□ 3번 안건: Bird

- 작품에 대한 설명과 작품이 잘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전 작품보다는 낫지만 작가 경력에 있는 작품들이 더 좋아 보임
- 변경 전보다 훨씬 좋음. 다만, 작가의 이전 작품들과의 공통점은 모르겠음
- 브론즈와 형태적 메스가 잘 어우러진 무난한 작품이지만 설치 장소가 협소하고 답답해 보임
- 작가의 독창적 개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
- 참신하지 않은 조형적 해석
- 브론즈 캐스팅의 견고함과 밀도 있는 입체 형식 구조
- 작품설명 중 “날개를 펼치기 직전의 새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했다는 형태적 표현이 어색하고 규모가 위협적으로 거대한 느낌이 듦
- 작품으로서의 임팩트보다 조형성만 강조됨

□ 4번 안건: 씨앗-생명나무

- 추상적 덩어리와 구상적 선재가 대비되어 시각적 긴장감을 자아내는, 큰 무리 없는 조형작품
- 작가 전작과 개연성이 부족하고, 생명의 해석이 일차적이라 상상력을 확장시키기에 부족함
- 표현과 상징의 사용이 필요 이상으로 직설적이고 생경함
- 생명에 대한 고찰보다는 조형성에 더 무게를 둔 작품
- 장소성에 대한 고려가 좀 더 했으면 좋겠음
- 요소들의 조합이 빈약해 보여 아쉬움
- 상반된 두 형태의 조합이 예술적 긴장감을 느껴지기 보다는 불안하고 산만함

□ 5번 안건: 빛이 드는 공간

- 국회라는 특수한 공간에 이 작품이 개입되었을 때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 무엇을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듦
- 이 장소가 갖는 의미와 연결성을 찾기 어려움
- 국회 스마트센터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잘 살렸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단순한 콘셉트가 작품의 주제와 표현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 재미있는 작품
- 공간과 큰 무리 없이 어울리는 무난한 작품
- 디자인적인 느낌이 들지만,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을 듯함
- 변경 전보다 낫지만, 빛에 따라 움직이는 작품을 정확하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음
- 경직된 공간에 참신한 시도

□ 6번 안건: 바람-바람-함께/Wind-Wish-With,

2020-0-03(봄의소리),06(과거로부터), 11(고향산천), 20(하늘바람))

- 이전 작품들에 비해 개선된 점을 느끼기 어려움
- 동일 작가의 다른 작품, 13차 심의와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음
- 일관성이 부족하고, 작품의 조형적 깊이에 따른 예술적 감흥이 부족함
- 변경, 수정된 부분을 찾기 어려움
- 작품가 다소 과다함
- 작가만의 독창성이나 개성을 느끼기 어려움
- 조형적으로 평이함
- 예술적 깊이를 좀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음

□ 7-1번 안건: Eco Flow: Self-Image

- 주제 해석이 아쉽고, 생뚱맞게 느껴짐
- 이전 작품들은 조형적으로 탄탄한 느낌이 드는 반면, 이번 작품은 조금 어설픈 느낌이 듭
- 이전 작업들을 보면, 모든 개념들을 나선형이라든지 선형적 요소를 가지고 풀어냈는데, 이번 작품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조형어법과 맞지 않고 작위적이라고 생각함
- 유사 경향의 작품들이 다수 있으나 형태나 표현이 세련되고 주제를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해석한 좋은 작품
- 주제가 빈약하고, 형상이 어색함
- 아름답다고 느끼기 보다는 산만하게 느껴짐
- 장소 특정적이지 않음
- 많이 봐와서 익숙해진 작품

□ 7-2번 안건: 명경지수(明鏡止水)

- 무난한 작품
- 조형적으로 세련되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
- 주제에 따른 형태적 해석과 색상 등이 잘 어우러진 작품
- 너무 설명적인 구현으로 흥미를 감소시킴
- 독특한 미감을 추구했는지 모르겠으나 작위적으로 완성한 것 같음
- 조형언어가 평범하고 생경함

□ 7-3번 안건: 합창

- 진부한 작가들의 작업과는 다른 작업방식을 사용하여, 참신하게 느껴짐
- 이전 작품들을 보면 열정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 같음
- 주변 경관과는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작가의 이전 작품과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작품을 꾸준히 갱신해왔는지는 의문이 듭
- 표현은 재미가 있으나, 중앙의 모티프에 비해 요소가 빈약하고, 전체적으로 재미없는 형태적 메스가 주는 매력이 아쉬운 작품
- 과도한 섬세함으로 작품의 의도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듯함
- 의도와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세공된 청동 주물, 점토 원형 과정을 거친 세부표현과 전체적인 입체감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

□ 8-1번 안건: 식물로부터

- 얼마 전 심의에서 좋은 기획의 식물형태 작품의 큐레이팅을 통해 대거의 작품이 한꺼번에 승인된 사례가 있는데,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기획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음
- 불안해보이지만 명랑하게 서있는 모습이 매력적임
- 기획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 재미있는 장소가 될 것 같음
- 식물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나무, 풀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음
- 유사작품 다수, 이 조형물 자체로도 개성이 부족하고, 예술성이 아쉬운 작품
- 이전에 아파트 단지 전체를 식물로 큐레이팅 했었던 것과 대체로 같은 맥락이지만 이번까지는 무난함
- 작가의 작품에 흔히 쓰이는 목재, 재질감의 부재가 아쉬움
- 작가 본인의 작품과 연계성이 있고, 건물과도 잘 어울림

□ 8-2번 안건: Trace of Secret

- 얼마 전 심의에서 좋은 기획의 식물형태 작품의 큐레이팅을 통해 대거의 작품이 한꺼번에 승인된 사례가 있는데,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기획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음
- 식물이라는 주제로 전체 작품들이 통일을 이룬 것은 좋으나, 새로운 미적 긴장을 찾기 어려움
- 평소 작품에 비해 조형적 완성도가 부족하고, 평이한 작품
- 기법적 시도는 좋으나, 조형적으로 예술성을 좀 더 갖추었으면 좋겠음
- 불필요한 재료의 개입, 작품의 무게 감소
- 독창성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율동 구조

□ 8-3번 안건: 喬陟(교척)

- 커팅으로 작업하는 것은 작품이라기보다 장식적인 느낌이 강해 미술 작품으로서의 작품성이나 조형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미술작품이라기 보다는 디자인 느낌이 강함
- 공간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도 어렵고, 공간이 아깝게 느껴짐
- 벽면에 설치된 조형물은 신선하나, 조형성과 표현이 식상한 평이한 작품
- 작가의 평소 창작 방향성과도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임
- 장식적 기능 외에 미술작품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의문
- 표현이 평범하고 현대적이라고 볼 수 없음

□ 8-4번 안건: Lighting Forest

- 유리라는 재질이 흥미로울 수는 있으나, 조형적 표현의 독창성이나 세련됨이 좀 더 느껴졌으면 좋겠음
- 작가적 개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 해 아쉽고, 평이하게 느껴짐
- 조각적 상상력이 더해진 나무의 형상이면 더 좋을 것 같음
- 일차원적 색감, 일반적인 형태, 스토리와 조형언어 모두 아쉬운 작품
- 조명 형식으로 주변 민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야외 환경에 부적합한 매체형식
- 형태가 어색하고 특별하다고 볼 수 없음
- 장식성이 강한 작품

□ 9-1번 안건: Moving Forest

- 작품 자체로는 좋은 작품이지만 이런 종류의 작품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음
- 작품에 대한 작가의 오리지널리티에는 문제가 없는 좋은 작품
- 텍스트 형태가 있는데, 아래쪽에서 봤을 때 위에 적혀있는 Forest라는 단어가 기능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 평이하고 작가적 개성을 느끼기 어려운 조형물
- 장식성 이외에 예술성을 찾기 어려운 평이한 조형물
- 조각적 상상력이 촉발되지 않고, 동일 작가의 유사작업이 많음
- 간결하고 시원해 보이지만 개념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면 진부한 패턴일 뿐

□ 9-2번 안건: Blue Bird

- 작품의 높이도 좋고, 작품의 위치도 좋음
- 잔디밭과도 잘 어울림
- 정감 있고, 재미있는 조형물
- 작가적 개성이나 예술성보다는 위트와 재치가 있는 무난한 조형물
- 작품으로서 무난하지만, 평이한 작품
- 너무 작위적인 의미부여는 아쉬움
- 작가의 이전 작품보다 많이 좋음

□ 10-1번 안건: 비상

- 작가의 이전 작품들과 연관성도 없고, 개인전 경력을 보면 90년대 이후 활동이 없는 것이 아쉬움
- 비상이라고 보기에선 필요 이상으로 거대하게 느껴져 둔해 보임
- 조형물 이상의 작품성이나 예술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물
- 개성 부족한 일반 건축 조형물 같은 느낌이 듦
- 작품 완성도와 디테일 부족
- 작품 가격 과다한 면도 있음
- 대담해 보이긴 하지만, 작가의 기존 작품과는 너무 다른 조형언어
- 작가의 전작과 개연성 부족함
- 건축물과 안정적으로 조화를 이룸
- 새를 모티프로 조형화한 형태의 설득력이 없음

□ 10-2번 안건: 해맞이 숲

- 돌기둥이 돌아가는 느낌을 생동감 있게 잘 살렸지만, 바닥부분이 없었다면 더 힘이 있었을 것 같음
- 생명력 있는 운동감은 좋으나, 바닥 부분이 없었으면 힘이 있을 것 같음
- 생동감 있게 풀어냈지만 이런 돌아가는 형식의 조형어법은 이제 너무 흔함
- 작품 설명판의 글귀가 문법적으로 어색하고, 폰트도 좀 더 예뻐지면 좋겠음
- 자연적 모티프를 약화시킨 평이한 조형물
- 작품성이나 예술성보다는 장식적 기능을 갖춘 어색한 조형성
- 서울 시내에 엄청 많고, 상투적인 조형물로 느껴짐
- 조각적 신선함을 좀 더 갖추었으면 좋겠음
- 매우 유사한 형태의 작품들이 너무 많았음

□ 10-3번 안건: 사물의 꿈-생명

- 작품의 위치는 규모가 큰 작품이 들어가기에 좋은 위치인 것 같음
- 색상이 실제로 표현된다면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음
- 역량이 있는 작가이므로 실제 도서의 작품과 색상이 비슷하게 잘 나올 것 같음
- 산만하고 반복되는 모티프가 다소 액센트 있는 시각적 환경을 만들어냄
- 메시지가 다소 부족한 평이한 장식적 조형물
- 공간과 잘 어울림
- 색감과 형태가 다소 그로테스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음
- 작품 크기 과다하여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함
- 현란한 작품이 장소와 잘 어울릴지는 의문이 듦

□ 10-4번 안건: 자연·이미지

- 너무 많이 봐왔던 작품
- 작품성, 작가적 개성 모두 아쉬움 작품
- 동일 작가의 유사작업이 많고, 특별함을 느끼기 어려움
- 평이한 작품
- 표현이 평범하고, 장소와 어울리지 않음
- 내부 인테리어에서 중심을 잡는 듯한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음

□ 11-1번 안건: 온고지신-새싹

- 조형물로서는 정감가고 무리 없는 작품이지만, 최근 심의에 자주 들어오고, 많이 통과된 익숙한 작품
- 실제 설치 시 도면과 같은 완성도 있는 마감이 요구됨
- 작가의 유사작품들이 많아 시민들에게 비슷한 미적체험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 우려됨
-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간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구성이 빈약함
- 장식성이 과해 독창적 작품으로서 미적 감흥을 느낄 수 없음
- 장소와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11-2번 안건: I.m fine - Shining

- 형태나 조형이 어색한 평이한 조형물
- 새로움, 참신함은 느껴지지만 그 외의 매력을 느끼기 어려움
- 자연적 형태를 모티프로 하였으나 작가적 해석이나 예술성과는 괴리가 있음
-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흥미롭지 못 한 형태와 구현방법이 아쉬움
- 장식성이 과해 독창적 작품으로서 미적 감흥을 느끼기 어려움
- 야외 공간에 조명 형식 구조의 문제
- 건축 공간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11-3번 안건: 풍요

- 평이한 장식적 거리 조형물
- 미적 감흥이나 체험을 제공하기에는 평범한 조형물
- 조각적 참신함을 좀 더 갖추었으면 좋겠고, 산만함을 줄었으면 좋겠음
- 요소들의 결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장식성이 과해 독창적 작품으로서 미적 감흥을 느낄 수 없음
- 조각적 긴장감 부족함
- 석재와 금속 접합 방식의 문제가 검토 되어야 할 듯함
- 표현이 평범하고 독특성이 없음
- 새로움을 느끼기 어려운 익숙한 작품

□ 11-4번 안건: 꽃의 향연

- 자연적 모티브를 어색하게 조형적으로 해석하여 아쉬움
- 장소적 맥락에 대한 고려를 좀 더 했으면 좋겠음
- 너무 일차원적인 메시지와 표현이 아쉽고, 장식적으로 산만함
- 장식성이 과해 독창적 작품으로서 미적 감흥을 느끼기 어려움
- 지나친 장식성이 아쉽고, 조각의 상상력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음
- 야외 환경 속, 금속 자재의 도색된 색상 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12번 안건: 공간의 확장

- 작품 설명에 '인간의 욕망과 꿈 희망,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작품을 감상하는 시민들이 어렵게 받아들일 것 같음
- 작가의 초창기 작업이나 현재 작업이나 형식이 비슷하므로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음
- 조형성이나 작품의 전체 설치형태가 무난함
- 작가의 창작 맥락상에 있어 작품성이나 예술성 무리 없음
- 수직적 구성이 아닌 수평 구성은 신선하지만, 작품이 왜소하고 작품간 관계의 긴밀성이 부족함
- 수평적 확장은 긍정적
- 기시감은 있으나 공간과는 잘 어울림

□ 13-1번 안건: COSMOS 고고학적 기상도-황금빛 유토피아 한 그릇

- 이 공간에서 시민들의 예술적 체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장소적 배려도 부족하고, 너무 장식적인 부분도 있어서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
- 작품을 감상할만한 장소확보가 필요할 것 같음
- 작품을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너무 좁게 느껴짐
- 공공미술로서 장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음
- 장식성이나 작품성 측면에서 큰 무리 없는 작품
- 작가의 이전 작품들이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공간을 해석하고 작품을 선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조형적 예술성 부족
- 작품 자체는 예쁘지만 평범한 내용과 형식
- 장식성에 비해 회화의 상상력을 확장시키지 못 함
- 공공성 결여, 전시 공간 확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13-2번 안건: Gentleman

- 작품성을 가늠하기 힘든 애매한 작품
- 표현이 해학적이라고 하기에는 작품의 깊이를 좀 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조형적인 부분의 예술성 아쉬움
- 예쁘지만 평범한 내용과 형식이고, 생경함
- 색과 주제가 강해 주변 환경과 부딪힐 수 있음
- 공공적 장소에 다소 부담스러움과 개성 있는 작품으로서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음
- 공공성 결여, 전시 공간 확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독특함이 있음

□ 13-3번 안건: 비밀의 숲 secret forest

- 같은 작가의 작품이지만 13-2번 작품은 새로운 체험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3-3번은 조금 과도한 느낌이 듦
- 퀄리티가 높은 상상력은 아닐지라도, 톡톡 던져주는 해학적 요소가 있어 좋음
- 개성 있으나 미적 체험의 깊이가 아쉽고, 대중 친화적이나 작품성이 아쉬운 작품
- 조형적 예술성 부족
- 예쁘지만 진부한 내용과 형식
- 크기가 커지면서 밀도가 떨어져 보임
- 조형적 결합이 과잉된 것 같은 느낌
- 전시 공간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좀 더 갖추었으면 좋겠음
- 공간과 잘 어울린다고 보기 어려움
- 독특한 상상력이 좋음

□ 13-4번 안건: 차 부뚜막(茶竈)

- 미적 체험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쉬우나, 큰 무리는 없는 무난한 작품
-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함
-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아쉽음
- 조형적 예술성 부족
- 예쁘지만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과 형식
- 장식적으로 평이함
- 공공성 결여, 전시 공간 확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작가의 기존 작품보다 이 작품이 좋음

□ 14-1번 안건: Human Nature

- 야외라는 장소 특성상 스테인드글라스가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으며, 조형적으로 특별하지도 않고, 작품과 공간에 대해서 특별한 해석이나 고민을 좀 더 해야할 것 같음
- 작가의 이전 작품들은 좋는데 이 작품은 많이 아쉬움
- 프레임들이 너무 강해서 스테인드글라스의 효과가 묻혀버림
- 병원이라는 특성상 이 작품과 어울리는지도 의문이 듦
-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닌 몬드리안패턴을 가져왔다면 괜찮을 것 같음
- 바로 옆에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매달릴 수도 있고 유리로 되어있는 점이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공간과도 어울리고 작품성도 무리 없는 설치 조형물
- 신선한 스테인드글라스 조형 작품
- 작품 가격이 지나치게 과다함
- 작가가 기존 작업에서 보여줬던 독창성과 매력이 이 작품에서는 발현되지 못해 아쉬움
- 스테인드글라스의 양이 적어 효과에 대한 의문
- 몬드리안의 패턴을 해체 해석한 형태와 색채의 설득력이 없음
- 실제 설치했을 때 산만해 보일 수 있음

□ 14-2번 안건: 가을바람(Autumn Breeze)

- 첫 번째 작품보다는 이 작품이 더 좋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한 작품
- 작가의 이전 작품들을 보면 모두 세련된 느낌이 들지만, 작가 고유의 정체성을 느끼기 어려움
- 작가의 경향에 따른 작품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 공간과 잘 어울리는 설치 조형 작품
- 미적 측면에서나 작품성 측면에서 큰 무리 없이 잘 어울리는 키네틱 아트 작품
- 유지보수가 어려울 것 같고, 작가 특유의 독창성이 보이지 않음
- 미적 긴장감도 느껴지고, 색감도 좋음
- 건축 내부에 적합한 형식 구조
- 공간과 잘 어울림

□ 15-1번 안건: 생일날 - Birthday

- 건물에 비해서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품의 의미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음
- 작품의 콘셉트와 괴리된 애매한 표현의 설치 조형물
- 작품 가격 지나치게 과다한 느낌이 듦
- 작품이 내용적, 형식적으로 좀 더 풍부했으면 좋겠음
- 귀엽지만, 그 이상의 내용을 찾기는 어려움
- 장난스럽지만 호감은 가는 작품
- 재미있는 요소가 있으나 공공미술로서 지속적 미감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아쉬움
- 표현이 생경함
- 경쾌함이 좋음

□ 15-2번 안건: Urban forest

-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고, 디테일도 좋음
- 3개 모두 질감이 달라서 참신하고 작업의 성실함도 느껴짐
- 내부에 쓰레기가 모인다던지,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으므로 이에 대해 해결책이 필요함
- 작품 조형성은 큰 무리 없으나, 작가의 개성적 예술성이 아쉬운 설치 조각 작품
- 익숙한 구현 언어와 형태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발표>

오늘 32개 작품 중 1, 3, 5, 7-3, 8-1,2, 9-1,2, 10-3, 12, 13-4, 15-2번 안건이 승인되고, 나머지는 부결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9년 제14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